

#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으로”

### 시, 임신·출산·돌봄 최대규모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15일간 산후도우미서비스·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익산시가 임신에서 출산 돌봄까지 이어지는 최대규모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단계별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인구증가로 기대된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산형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만 지원했으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고 1,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도내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산모에게 최대 15일까지 산후도우미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신부에게 건강관리비 40만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맞벌이와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야간과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해야 할 차액보육료는 전액 지원해 무상보육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7억원을 투입해 도내 최초로 모든 이용 아동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70%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용 가정은 월 평균 5만2,000원에서 최대 49만2,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 기관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2022년까지 1곳을, 우리마을공동체는 2022년까지 매년 2곳씩 6곳을,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4곳을 추

가로 확대해 연령별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야간·주말·공휴일 등 필요한 시간에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카시트를 장착한 맞춤형 콜택시 운영으로 임신부나 보호자 영유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 등도 대폭 확대한다.

팔봉공원(2지구)에 실내놀이시설, 야외생태놀이터, 장애 직업체험관 등 대규모 키즈랜드를 조성하고 국립익산 박물관·보석박물관·공룡화석전시관·어린이박물관을 역사체험테마벨트로 구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익산시로 조성해 28만 인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재지정

### 현장실사 거쳐 19곳 발굴

군산시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가 가능한 주민대피장소를 발굴해 재지정을 마쳤다.

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피가 가능한 주민대피장소 19곳을 발굴해 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고지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피장소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과정없이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야외, 지하 등이 대피장소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현장실사를 거쳐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3곳을 제외하고,

대피가 용이한 7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북의 총 728만2,000톤 중에서 413만2,000톤인 58%에 이르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또한 전체 27개 사업장 중 97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장 2km 안에 오식도와 소룡동지역에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학사고가 확산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대피장소 재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장소 확보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근처 대피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노인의 날 기념식

대한노인회 익산시연합회는 14일 지회 2층 사무실에서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정현을 시장 유재구 시의장, 대한노인회 익산시연합회 임원진 등 49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소화했으며 행사장 사전방역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내빈 소개, 노인강령 낭독,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출산수반하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나라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인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 날(10월 2일)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일손 바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달부터

익산시가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 기간 동안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추진이 어려웠던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1억5,360만원이 투입됐으며 총 48개 마을에 마을 당 320만원이 지원된다.

당초 마을회관(경로당)에 조리원을 두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경로당) 내에서 급식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시, 내년도 인구정책 청사진 그리기

### 올 첫 인구 증가세 기세몰아 T/F팀 분야별 제안안 논의

군산시가 다양한 인구유입 대책을 논의하며 2021년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에서 논의된 제안 사항(20건) 중 해당 부서에서 실행하기에 어려운 사업(5건)에 대해 해당 부서 계장과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용역 과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2021년도 인구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지난 2월 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6개 분야별 간담회를 총 17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4년 만에 인구 증가세를 보여 9월말 기준 인구는



지난 13일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인구유입 대책을 논의했다.

26만8,025명으로 전담보다 43명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월평균 280명이 줄어들어 인구의 반등없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폭은 적지만 첫 증가세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기세로 이어나갈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연구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민배

움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동네문화 카페' 확장을 통한 교육의 일상화 ▲섬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고군산군도 장기체류 방안 및 고군산군도에 어울리는 맞춤형 축제 개발 ▲군산형 아동·청소년 연금 도입에 대한 보편적 사회수당 제시 등에 대한 것들이다.

/군산=한영봉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인구문제 지역기관 협력 요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문

정현을 시장이 지역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해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방문에 이어 14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해 인구문제 협력과 익산시방운동 실천 캠페인을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인구 28만 사수, 호남 3대 도시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이 익산시방운동 실천 캠페인과 바른주소찾기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방운동 실천 캠페인은 실거주 미집안자 바른주소찾기, 익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타시군 거주자 익산에 내 보금자리 갖기 운동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익산에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기 등 지역 인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정 시장은 15일 익산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지역기관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익산의 인구감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익산시방운동 실천 캠페인 통해 지자체와 상생협력 하겠다”며 바른주소찾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품 공원아파트 분양 등 인구정책 4대 역점 분야 사업과 함께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익산시방 실천 캠페인이나 인구감소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익산시방운동 실천 캠페인에 기관·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5강좌, 이찬중 소장 초청강의

이찬중 소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반려견 문화를 알려주는 새만금 아카데미가 열린다.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도시라는 비전으로 명사초청 시민대상 강연프로그램인 ‘군산새만금 아카데미’ 5강좌가 오는 20일 군산 어린이공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반려견 전문가 이삭에 견훈련소 이찬중 소장을 초청해 ‘이찬중과 함께하는 즐거운 반려견 문

화’란 주제로 반려견과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를 즐기게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에 대한 지식과 패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찬중 소장은 이삭 동물매개치료센터 소장, 이삭에견훈련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SBS ‘동물농장’, MBC ‘이리브렛’ 등 다수의 방송활동과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반려동물 예절교실’, ‘학습과 훈련 그리고 생활 등이 있다’

/군산=한영봉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